

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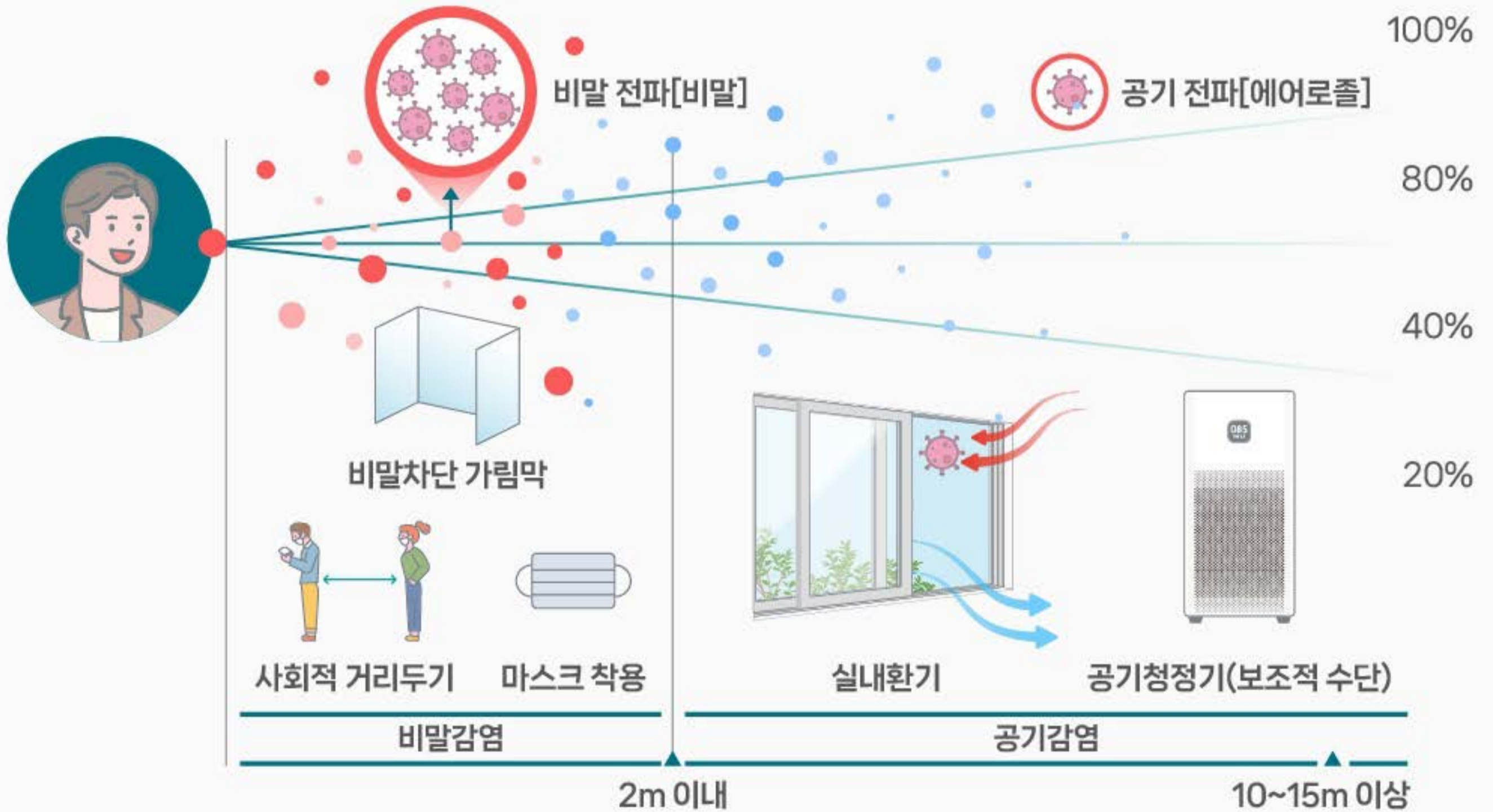
습기로운 환기수칙



밀집·밀집·밀폐에 의한 공기감염,
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요!

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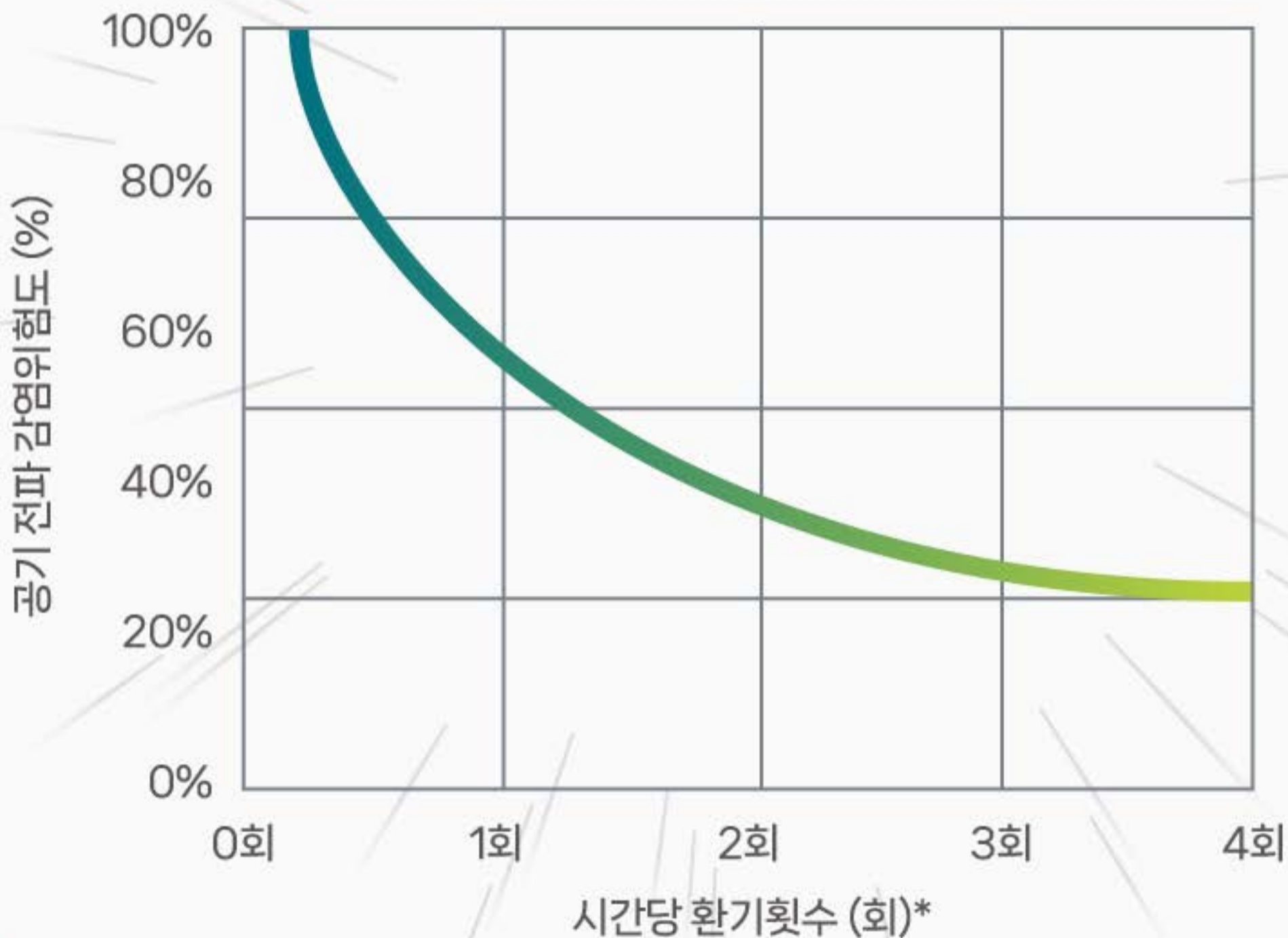
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~2m에서 가라앉으나,
5 μ m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떠다니며
10m 이상 전파가 가능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.



<입자 크기에 따른 전파 양상>

환기 횟수에 따른 감염위험도 감소 효과

환기량이 많을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,
10분 내외 환기 시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감소합니다.
(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3회 환기횟수 확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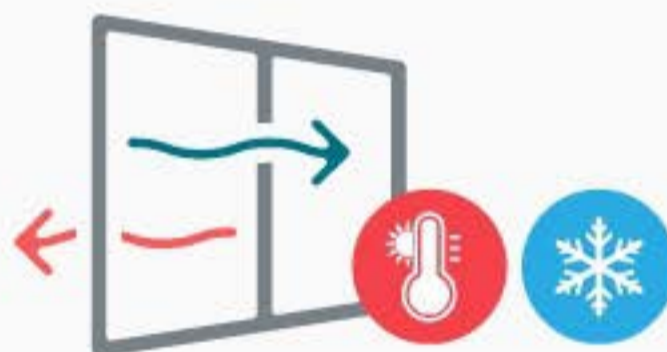
<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>

* 시간당 환기횟수(회)는 1시간에 실내 체적만큼 유입·유출되는 환기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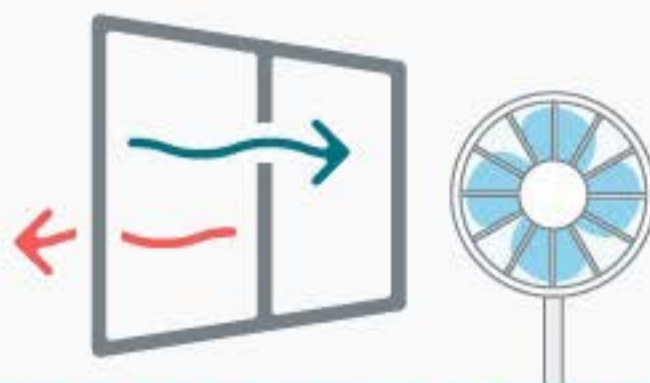
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



✓ 하루 최소 3회,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



✓ 냉·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



✓ 선풍기, 환풍기를 동시에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

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



- ✓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으로 하고,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



- ✓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



- ✓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

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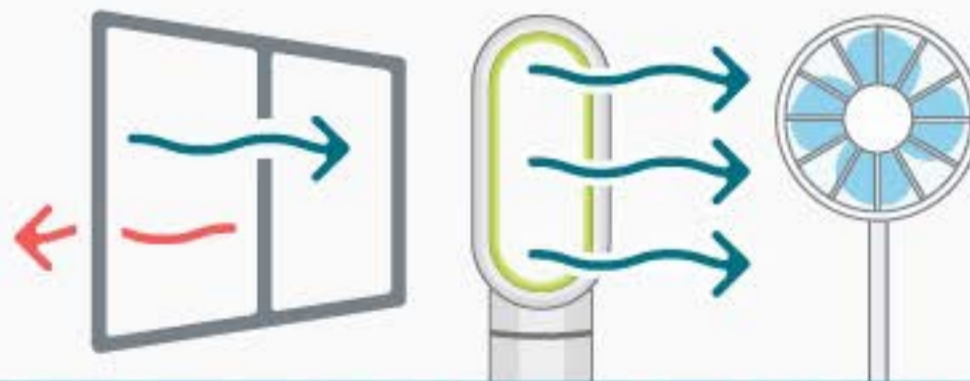


✓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



✓ 오염물질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지만, 감염원 농도를 현저히 감소

* 공기청정기 약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27% 대비
강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86%로 증가



✓ 공기청정기는 자연환기, 기계환기와 같이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과

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



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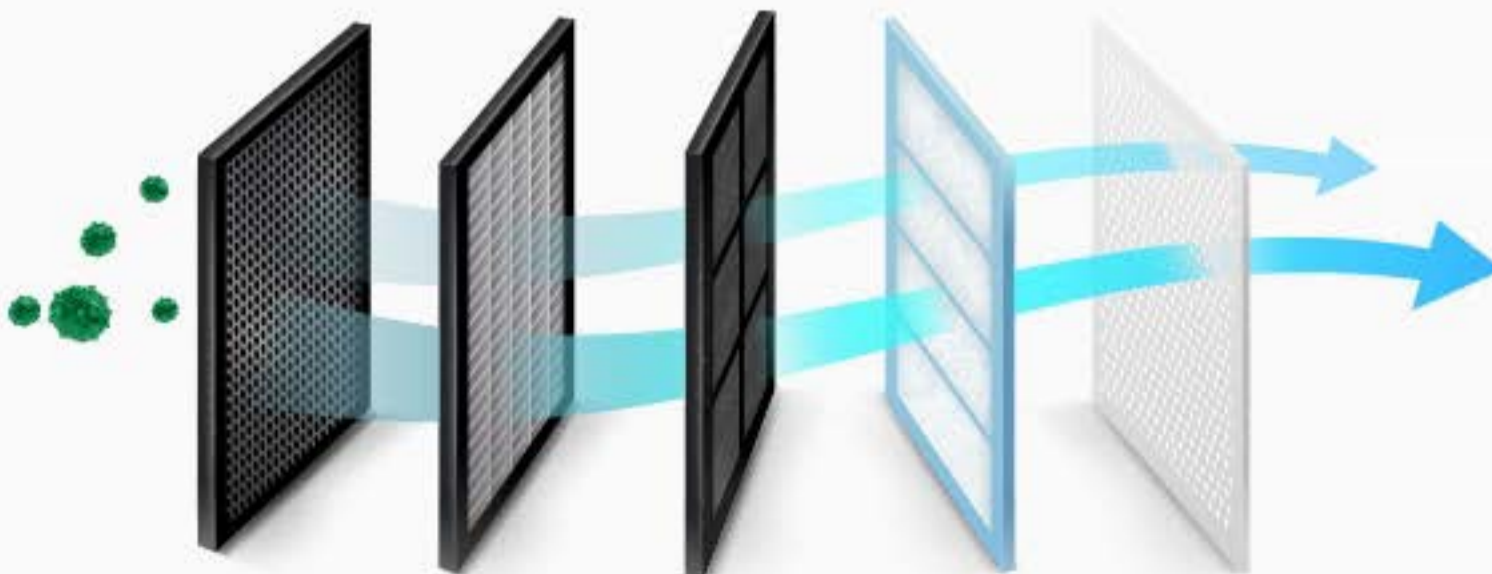
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

*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.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



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

일반적으로 집진필터(헤파필터)는 6개월~1년 사이에 교체,
제조사에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



“

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시간이 길수록
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집니다.

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
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준수하여
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!

”

